

칠십인역 잠언 18:8; 19:15의 안드로귀노스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인간 이해-

김선종*

1. 서론

서양의 종교, 철학, 문화를 형성한 근본적인 두 축은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다. 일반적으로 헤브라이즘은 유대 종교, 헬레니즘은 서양 철학을 대동한 그리스 사상을 대표하지만, 이러한 유대 종교와 그리스 철학이라는 도식화된 구분은 유대 철학과 고대 그리스 종교를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게 할 요소를 안고 있다.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철학과 종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관계 개념 아래, 많은 학자들은 이들 두 사상이 인간관, 신관, 세계상에서 서로 이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으로부터,¹⁾ 서로 대립하고 적대시하는 것으로 기술한다. 그러나 때로 이러한 일반화된 주장은 두 사상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부적절한 추론에서 비롯한다. 피상적으로는 이질적인 내용을 피력하는 것처럼 보이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인간관 및 신관을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행위는 보편 인간이 지니고 있는 실존을 무시하는 우를 범하게 한다. 두 사상, 철학, 종교는 때로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 문제에서 출발하여 대화하는 가운데 오늘의 문화를 일구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더욱 건전한 이해 방식일 것이다.²⁾ 이러한 점에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서가 그리스어로 번역되

* 호남신학대학교 조교수, 구약학.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332-A00058). 이 글은 2011년 9월 23일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개최된 제87차 한국구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좌장: 박동현 박사, 논찬: 김윤희, 기민석 박사)하고 보완하여 같은 해 10월 24일 한남대학교 기독교학과 대학원 학술세미나에서 발제한 것을 수정한 것이다. 귀한 조언을 해주신 논찬자들과 이문균, 이달 박사님께 감사한다.

1) 성경 안에서 그리스 사상에 대한 배척의 태도가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다. L. Gorsen, "La cohérence de la conception de Dieu dans l'Éclésiaste", *ETL* 46 (1970), 282-324 참조.

2) C. H. Gordon, *The Common Background of Greek and Hebrew Civilization* (New York: W. W.

고, 본래 그리스어로 기록된 문서들을 포함하고 있는 칠십인역 구약성서³⁾는 오늘날 기독교 신학자들뿐 아니라, 철학, 역사를 공부하는 인문학자들에게 많은 주의를 환기시킨다. 인류 고전의 보고로서 칠십인역에 대한 연구는 이들 이질적인 문명이 만나고 결합되었다는 점에서 두 문명을 이해하는 데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한다.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었지만 자신의 모국어를 잊어버리고 그리스 문화의 영향 아래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들의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했을 때,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⁴⁾

이처럼 칠십인역이 서양 문명을 형성한 기저로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결합된 하나의 구체적인 실례를 보여주고 있다면, 특별히 그 중에서도 칠십인역 구약성서의 잠언은 연구자들에게 더 깊은 호기심을 불러 일으킨다. 구약성서의 잠언은 지혜문학의 장르 안에 포함되어 있고, 지혜문학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 받고 있던 세속 지혜를 자신들의 종교 전통에 맞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⁵⁾ 비록 단순화의 오류를 범할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구약성서 중 지혜문학은 인간이 당하고 있는 구체적인 실존으로부터 신앙의 문제로 나아가는 아래로부터 위로의 방법에 의해 기술된 인간의 문학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서, 구약성서의 지혜문학은 이스라엘 종교가 세속 지혜 및 사상과 접촉하고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⁶⁾

지금까지 대부분의 잠언 연구자들은 이 책의 태동에 대해 이스라엘 내부에서의 출현 혹은 외부의 문화, 종교, 지혜문학과의 관련이라는 전제에서 이집트를 비롯한 구약 주변 세계의 문학이 이스라엘 지혜문학에 끼친 영향의 관점 아래 잠언의 탄생 배경을 연구해 왔다.⁷⁾ 잠언에 대한 이러한 구약 주변 세

Norton, 1965); E. Will et Cl. Orrieux, *Joudaïmos - Hellénismos. Essai sur le judaïsme judéen à l'époque hellénistique* (Nancy: Presses universitaires de Nancy, 1986).

- 3) 칠십인역의 의미, 번역목적, 최근의 번역 동향을 위해서는 김근주 외, “칠십인역 우리말 번역을 위한 연구-창세기 1:1-2:3의 예로-”, 『성경원문연구』 21 (2007), 53-68; 김정훈, 『칠십인역입문』(의정부: 바오로딸, 2009)을 보라.
- 4) 헤브라이즘과 그리스 철학의 접촉에 대한 연구는 영지주의를 비롯한 초기 기독교 역사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참조, B. A. Pearson, *Gnosticism, Judaism, and Egyptian Christianit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0), 26; W Walker, 『세계기독교회사』, 강근환 외 옮김(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7), 20-23.
- 5) 박준서,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운동”, 『구약논단』 8 (2000), 143-147; 천사무엘, 『지혜전승과 지혜문학』(서울: 동연, 2009), 27-31; R. N. Whybray, *Wisdom in Proverbs: The Concept of Wisdom in Proverbs 1-9* (Chatham: SCM, 1965), 104.
- 6) W. Zimmerli, “The Place and Limit of Wisdom in the Framework of the Old Testament Theology”, *SJT* 17 (1964), 146-158; J. L. Crenshaw, 『구약지혜문학의 이해』, 강성열 역(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24-27.
- 7) 이러한 배경을 위해서는 천사무엘, “잠언 연구의 주요 해석학적 과제들”, 『구약논단』 30

계 배경에서의 탐구는 방법론적으로 매우 타당하다. 다른 한편, 히브리 사상이 그리스 사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련에 대하여, 행엘(M. Hengel)은 “이스라엘 문학 초기에 나타난 이들 지혜에 대한 사색을 회랍적인 영향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 왜냐하면 회랍 문화에서 ‘소피아’ 주변에 신성성과 인격성이 나타난 것은 회랍 문화 후기의 일이기 때문이다”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후대의 독자들이 주제적인 측면에서 히브리 성경의 잠언에 나타나는 지혜 언설과 그리스 철학을 비교하는 것이 무리한 해석의 시도는 아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칠십인역 잠언에 대한 연구를 통한 것이다. 칠십인역 잠언 18:8과 19:15에는 히브리 원문에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단어가 나타나는데 이는 바로 ‘안드로퀴노스’(ἀνδρόγυνος)이다.

영어, 독어, 불어의 androgyne, Androgen, androgène을 파생시킨 그리스어 ‘안드로퀴노스’는 남성(ἀνδρός)과 여성(γῦνος)의 두 성을 한 몸에 지니고 있는 ‘자웅동체’를 일컫는 생물학 용어이다. 그러나 이 용어는 비단 생명체에 대한 연구의 차원을 넘어, 문학,⁹⁾ 종교학¹⁰⁾ 및 심리학¹¹⁾의 주요 연구 주제를 형성한다. 이러한 ‘안드로퀴노스’는 두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용어로서, 이 단어가 그리스어로 번역된 칠십인역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2008), 147-166; 천사무엘, 『지혜전승과 지혜문학』, 169-194; A Erman, “Eine ägyptische Quelle der ‘Spüche Salomos’”, *SPAW* 15 (1924), 86-93; C. Kayatz, *Studien zu Proverbien 1-9*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66), 93-119; G. von Rad, *Wisdom in Israel* (London: SCM, 1972), 153 등을 참조하라. 이스라엘 지혜의 토착화 과정에 대한 전통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G. Fohrer, “Σοφία”, *TWNT* 7, 476-496을 보라.

8) M. Hengel, *Judaism and Hellenism*, II, J. Bowden, trans. (London: SCM, 1974), 48. 구덕관, 『지혜와 율법』(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6), 51에서 재인용. 예를 들어, 주후 38년 경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솔로몬의 지혜서는 지혜를 그리스의 철학 사상과 관련시키며 유대교의 지혜를 다룬다. 참조, R. B. Y. Scott, “성서의 슬기”, 문희석 역, 『오늘의 지혜문학연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41; 천사무엘, 『구약 외경의 이해』(천안: 한국신학연구소, 2006), 132-134.

9) A. Züger, *Männerbilder - Frauenbilder: Androgyne Utopie in Der Deutschen Gegenwartsliteratur* (Bern; New York: P. Lang, 1992); F. Monneyron, *L'androgyne romantique: du mythe au mythe littéraire* (Grenoble: ELLUG, 1994); F. Monneyron, *L'androgyne décadent: mythe, figure, fantasmes* (Grenoble: Ellug, 1996); S. Horstkotte, *Androgyne Autorschaft: Poesie und Geschlecht im Prosawerk Clemens Brentanos* (Tübingen: M. Niemeyer, 2004); N. Mitterer, *Liebe ohne Gegenspieler: Androgyne Motive und Moderne Geschlechteridentitäten in Robert Musils Romanfragment “Der Mann ohne Eigenschaften”* (Graz: Grazer Universitätsverlag, 2007); H. Ouardi ed., *L'androgyne en littérature* (Dijon: Éd. universitaires de Dijon, 2009).

10) M. Eliade, *Méphisophélès et l'androgyne* (Paris: Gallimard, 1995).

11) C. G. 융, 『원형과 무의식』, 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서울: 숲, 2003), 171-194; D. A. Kille, *Psychological Biblical Interpretation* (Minneapolis: Fortress, 2001), 81-107.

본 연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인간 창조 이야기의 배경 아래 잠언 18장과 19장에 나타나는 ‘안드로귀노스’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 연구는 하나의 특정 단어에 대한 어의 연구를 넘어 야훼 신앙의 선봉장인 칠십인역 번역자가 새롭게 받아들인 헬레니즘 문명 아래에서 겪었을 고뇌를 바라보게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이 논문은 우선 본문비평의 입장에서 잠언의 두 구절에 나타나는 ‘안드로귀노스’와 그 파생어의 의미를 칠십인역 잠언 안에서 살펴본 후, 칠십인역 잠언의 두 구절을 마소라 본문과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2. 본문 이해

‘안드로귀노스’는 주전 360년 경 플라톤(주전 428/427-348/347년)이 저술한 『심포지움』(Symposium)¹²⁾에 등장하여 그리스의 인간 창조 이야기를 전개하는 핵심 용어이며(189de), 구약성서의 인간 창조 이야기와 화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질적인 내용을 형성한다. ‘안드로귀노스’는 그리스 신화가 설명하는 태고의 인간으로, 이 신화를 따르면 인간은 본래 남자와 여자의 양성이 한 몸을 이룬 자웅동체였다. 그러나 그는 제우스신의 진노를 받아 남자와 여자로 분리되며, 결혼을 통해 예전에 잃어버린 본래의 짝을 찾는다. 이것은 구약성서의 신, 야훼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서로 다른 두 성, 즉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였다(창 1:27; 2:21-22)는 내용과 양립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독교 신앙인들은 인간이 태초에 남성과 여성을 한 몸에 가지고 있었다고 증언하는 그리스 신화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또한 고대 그리스 철학이 활발했던 당시, 동성애 및 미동(美童)에 대한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졌다. 이 또한 그리스의 인간 창조 이야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애초에 창조된 인간이 남성과 남성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여성과 여성으로 결합되어 있었던 경우 동성애자로 태어난 것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구약성서를 따르면 동성애는 가증스러운 것으로 신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비난받는다(레 18:22 등). 이러한 점에서 그리스의 인간 창조 신화에서 사용된 ‘안드로귀노스’는 비단

12) 영어 번역본을 위해서는 E. Hamilton and H. Craigs, eds., *The Collected Dialogues of Plato*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2), 526-574 참조. 우리말로는 『향연』 혹은 『잔치』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다.

문학에서의 상상력과 그리스 신화의 인간 기원을 드러낼 뿐 아니라, 히브리인들에게는 그 문명의 윤리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¹³⁾ 구약성서의 관점에서 용납하기 힘든 용어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칠십인역 번역자가 이러한 독신(瀆神)적인 용어인 ‘안드로귀노스’를 자신의 번역에 도입한 것은 매우 놀랍다.

2.1. 칠십인역 잠언 안에서의 ‘안드로귀노스’: 여자 같은 남자?

오늘날 독자들이 칠십인역 그리스어 성경을 단지 히브리 성경에 대한 번역본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문학작품으로 읽는 것은 정당하다.¹⁴⁾ 이는 과거 칠십인역을 읽은 신앙인들이 더 이상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칠십인역은 단순한 번역본이 아니라 권위 있는 성경이었기 때문에, 후대의 독자들 역시 ‘안드로귀노스’를 포함하는 잠언 19:15를 우선적으로 칠십인역 문맥 안에서 이해하려 시도해야 한다. 특별히 칠십인역 잠언 19:15를 앞 절에 연결하여 읽을 때, 기묘한 말놀이를 통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잠 19:14

οἶκον καὶ ὑπαρξιν μερίζουσιν πατέρες παισίν

παρὰ δὲ θεοῦ ἀρμόζεται **γυνή ἀνδρί**

집과 재물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러나 **아내**는 하나님에 의해 **남편에게** 주어진다(사역).

Maison et fortune, les parents les partagent aux enfants,

mais c'est par Dieu qu'**une femme** est assortie à **son mari**(*gunè*

andri)[BA¹⁵⁾].

Fathers divide house and substance to *their* children:

but **a wife** is suited **to a man** by the Lord(Brenton).

13) W. Loader, *Philo, Josephus, and the Testaments on Sexuality: Attitudes towards Sexuality in the Writings of Philo and Josephus and in the Testaments of the Twelve Patriarchs* (Grand Rapids; Cambridge: Eerdmans, 2011), 207-208.

14) J. Lust, “Exegesis and Theology in the Septuagint of Ezekiel. The Longer ‘Pluses’ and Ezek 43:1-9”, C. E. Cox, ed., *LXX VI Congress of IOSOT, Jerusalem 1986* (Atlanta: Scholars Press, 1987), 201.

15) D.-M. d’Hamonville, *La Bible d’Alexandrie: Les Proverbes* (Paris: Cerf, 2000).

잠 19:15

δειλία κατέχει **άνδρογύναιον** ψυχή δὲ ἀεργοῦ πεινώσει

겁은 안드로키노스를 사로잡는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배고플 것이다(사역).

La lâcheté retient l'androgyné(*andro-gúnaion*), l'âme du désœuvré aura faim(BA).

Cowardice possesses **the effeminate man** and the soul of the sluggard shall hunger(Brenton).

칠십인역 잠언 19:15는 ‘안드로키노스’(άνδρογύναιον)를 그 앞 절에 등장하는 ‘귀네 안드리’(γυνή άνδρί) 뒤에 배열한다. 여기에서 ‘귀네 안드리’는 뒤이어 나타날 ‘안드로키노스’를 위해 의도된 표현으로 보이는데, ‘귀네’는 히브리 본문의 ‘잇샤’에 해당하지만, ‘남자’(남편) 아네르(άνήρ)에 대응하는 히브리어는 마소라 본문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בֵּית יְהוֹן נִחַלַת אֲבוֹת וּמִיָּהָנָה אִשָּׁה מִשְׁכַּלְתָּ: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잠 19:14).¹⁶⁾

‘여인이 남편에게 속한다’라는 ‘귀네 안드리’는 사실 ‘안드로키노스’와 의미론적으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나 두 개의 단어를 뒤바꿈으로써(귀네-안드리, 안드로-키노스) 음성학의 차원에서 ‘안드로키노스’의 등장을 예고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귀네 안드리’는 잠언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주요 주제인 ‘현숙한 여인’¹⁷⁾(γυνή άνδρείος; לִיבָּ-תְּשׁוּבָה)[잠 31:10-33]을 상기시킨다.¹⁸⁾ 그렇다면, 독자들은 칠십인역 단락에서 ‘안드로키노스’를 자연스럽게 ‘여자 같은 남자’, 즉 19:15에 병행되어 나타나는 심약하고 비겁하며(δειλία) 게으른(ἀεργός)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여자 같은 남자’는 오히려 문자적으로 ‘남자 같은 여자’(γυνή άνδρεία 혹은 γυναίκα άνδρείαν)보다도 못한 자이다. 이러한 칠십인역 잠언 19장의 번역자는 사람을 남자, 여자, 여자 같은 남자(안드로키노스)의 세 부류로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⁹⁾ 이는 앞에서

16) 이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을 시, 『개역개정』을 인용한다.

17) ‘현숙한 여인’의 번역에 대한 이해를 이해서는 민영진, “현숙(賢淑)한 아내나, 유능(有能)한 아내나: 잠언 31:10-31”, 『성경연구』 70 (2001), 42-59와 김유기, “잠언 31장 10절 <에세트 하일>의 의미”, 『장신논단』 40 (2011), 119-141 참조.

18) 구약성서에 세 차례 등장하는 ‘에세트 하일’이 룻 3:11에서는 ‘γυνή δυνάμεως’로, 잠 12:4에서는 ‘γυνή άνδρεία’로, 잠 31:10에서는 ‘γυναίκα άνδρείαν’로 번역된다.

19) D.-M. D’Hamonville, *Les Proverbes*, 109.

언급한 플라톤의 심포지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처럼 칠십인역 잠언에서 ‘안드로귀노스’가 경멸의 의미에서 ‘여자 같은 남자’를 지시하듯이, 플라톤의 저작에서도 ‘자웅동체’로서의 인류는 신에게 저항한 별로서 더 이상 그 용맹을 떨치지 못하는 게으르고 심약한 존재들로 전락한다(189e, 191b).

2.2. 마소라 본문과 비교를 통해 본 ‘안드로귀노스’: 자웅동체?

‘안드로귀노스’를 위에서와 같이 칠십인역 본문 안에서 살펴볼 때, ‘여자 같은 남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안드로귀노스’라는 단어가 칠십인역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사실이 이미 고대 본문의 역사와 철학 및 신학의 측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 제기할 수 있는 질문 가운데 이 연구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문제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문의 측면에서 잠언 18:8의 경우, 칠십인역 본문은 히브리 본문의 번역에 해당하지 않는다.²⁰⁾ 이는 단지 칠십인역 잠언이 마소라 본문에 대한 자유로운 번역 혹은 ‘주석적 번역’²¹⁾이라는 설명으로 충분하지 않고, 아마도 다른 히브리 본문을 대본으로 가지고 있었거나 마소라 본문에 대한 오류로 잠정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²²⁾ 그 하반절은 잠언 19:15에 대한 이중 번역에 해당하며, 마소라 잠언 18:8 본문이 26:22에 또다시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점이 이러한 본문의 복잡함을 보여준다

잠 18:8

잠 19:15

דְּבַרְךָ יִרְדּוּ חֲדָרֵי בָטָן;

עֲצֵלָה תִפְּלֵל תְּרַדְמָה וְנִפְשׁ רַמְיָה תִרְעָב;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
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니 태만한 사람은 주릴 것이니라.

20) 잠 18:8의 히브리 본문에 대한 그리스어 번역은 잠 26:22에서 찾을 수 있다.

21) 칠십인역 잠언의 번역자가 자신의 대본을 매우 자유롭게 번역한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관찰하였다. E. Tov, “Recensional Differences between the MT and LXX of the Book of Proverbs”, *The Greek and Hebrew Bible: Collected Essays by E. Tov*, SVT 72 (Leiden: Brill, 1997), 420; K. H. Jobes and M. Silva, *Invitation to the Septuagint* (Grand Rapids: Baker, 2000), 114; J. Cook, *The Septuagint of Proverbs - Jewish and/or Hellenistic Proverbs? Concerning the Hellenistic Colouring of LXX Proverbs*, VTS 69 (Leiden: Brill, 1997), 35-36, 246; 김정우, 『잠언』,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19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81.

22) 후자의 입장을 위해서는 참조, C. H. Toy, *The Book of Proverbs*, ICC (Edinburgh: T & T Clark, 1977), 360.

ὀκνηροὺς καταβάλλει φόβος ψυχὰι δὲ ἀνδρογύνων πεινάσουσιν
 δειλία κατέχει ἀνδρογύναιον ψυχὴ δὲ ἄεργοῦ πεινάσει

Fear casts down the slothful; and the souls of *the effeminate* shall hunger(Brenton).

Cowardice possesses **the effeminate man** and the soul of the sluggard shall hunger(Brenton).

La crainte terrasse les paresseux, les âmes des *femmelettes* auront faim(BA).²³⁾

La lâcheté retient la *femmelette*, l'âme du désœuvré aura faim(BA).

Furcht drückt die Faulen nieder, und die Seelen der *Verwechlichten* hungern(SD).²⁴⁾ Freiheit hält den *Verweichlichten* zurück, die Seele des Nichtarbeitenden wird hungern(SD).

이러한 난해한 세 본문(18:8; 19:15; 26:22)을 통해 구약성서 잠언 본문의 역사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잠언 연구자들은 칠십인역 잠언의 배열이 마소라 본문의 배열과 다르다는 관찰을 바탕으로 현재 잠언에 수록되어 있는 각 수집물들이 독립적으로 유통되고 있었고, 수집물들의 배열에 관한 히브리 본문 전승이 여러 개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왔다.²⁵⁾ 그러나 이러한 두 본문 사이의 차이는 비단 마소라 성경과 칠십인역 성경의 배열에서 뿐 아니라, 본 논문이 다루는 구절이 다른 번역을 담고 있는 사실에서 본문의 역사를 추적하는 것은 한두 마디로 설명하기는 매우 힘들다.²⁶⁾ 그리스어 ‘안드로키노스’를 포함하는 본문에 제한하여 살펴볼 때 분명한 사실은 칠십인역 번역자가 히브리 본문을 매우 자유롭게 번역했다는 점이다. 이는 ‘안드로키노스’에 해당하는 히브리 대응어²⁷⁾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23) D.-M. d'Hamonville, *Les Proverbes*, 264.

24) M. Karrer and W. Kraus, eds., *Septuaginta Deutsch: Das griechische Alte Testament in deutscher Übersetzung*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0), 958.

25) 예를 들어, R. K. Harrison, 『구약서론(하)』, 류호준, 박철현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66-70.

26) 토브(Tov) 역시 이 본문을 다루고 있지 않다. E.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27) 창 2:23에서 남자(אָנָשׁ)와 여자(אִשָּׁה)의 조합된 표현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안드로키노스와 같은 ‘남자-여자’(이쉬-잇샤)가 히브리 본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이쉬-잇샤’의 표현을 위해서는 참조, W. Loader, *The Septuagint, Sexuality, and the New Testament: Case Studies*

다음으로, 신학의 측면에서 이처럼 불경스러운 단어를 선택한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난해함을 설명하기 위해 대부분의 칠십인역 현대어 번역은 ‘안드로귀노스’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뜻, 즉 ‘자용동체’와 ‘여자 같은 남자’ 중 후자를 선택한다. 칠십인역 연구를 위해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러스트(Lust)의 사전은 ‘안드로귀노스’가 가지고 있는 일차적인 의미인 ‘자용동체’로서의 정의를 소개조차 하지 않는다.²⁸⁾ 최근에는 무라오카(Muraoka) 역시 이 단어를 ‘effeminate person’으로 규정했다.²⁹⁾ 이는 그다지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리들-스콧(Liddell and Scott)이 ‘안드로귀노스’를 정의하는 두 항목, 즉 ‘1. a man-woman, hermaphrodite, Plat., 2. a womanish man, effeminate person, Hdt.’³⁰⁾ 중, 두 번째 의미만 선택적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두 의미 중 ‘자용동체’를 신학적인 이유에서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하여 위에서 소개한 칠십인역 본문에 대한 영어, 불어, 독어 번역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듯이 이들 또한 이러한 전통적인 칠십인역 사전의 경향을 따른다. 이 중 특히 브렌튼(Brenton)은 19:15에서 18:8에서의 칠십인역 번역에서와 달리 ‘the effeminate’ 다음에 *man*을 이탤릭체로 첨가함으로써 번역의 고층을 드러낸다. 독자들은 물론 이들 사전 편찬자와 번역자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다. 히브리 본문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칠십인역 번역자가 이 단어를 ‘자용동체’의 의미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여자 같은 남자’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했는지 2000년이 흐른 오늘날 독자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헬레니즘 문화에 충분히 젖어 있었을 번역자가 ‘안드로귀노스’가 가지고 있는 일차적 의미로서의 ‘자용동체’를 모르거나 의식하지 않았을 리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 단어가 일차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용동체로서의 의미가 소개되어 있지 않거나, 번역의 각주에서조차 설명하지 않는 것은 신학의 난맥을 피하려는

on the Impact of the LXX in Philo and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Cambridge: Eerdmans, 2004), 38-69. 창 1:27과 5:2에 나타나는 ‘남자와 여자’는 ‘이쉬-잇샤’가 아니라 ‘자카르 브스케바’(הַבָּרָא וְהַיְחָדָה)이다. 이에 대한 그리스어 대응어는 ‘안드로귀노스’가 아니라, ‘ἄρσεν και ἠθῆλυ’이다. 창 7:2에서 ‘이쉬 브이쉬토’(יִשְׁתָּו וְיִשְׁתָּו)를 발견할 수 있지만, 이는 방주에 들어갈 수컷과 그의 암컷을 가리킨다.

28) J. Lust, E. Eynikel, and K. Hauspie, with the collaboration of G. Chamberlain,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Septuagint*. Pt. 1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2), 34는 잠언 19:15의 ‘안드로귀나이오스’(ἀνδρογύναιος)를 ‘like an effeminate man’으로, 잠언 18:8의 ‘안드로귀노스’를 ‘womanish man, effeminate person’으로 정의한다.

29) T. Muraoka,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Septuagint* (Louvain; Paris; Walpole: Peeters, 2009), 49. 2010년 8월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열린 제20회 국제구약학회(IOSOT)에서 무라오카 교수에게 이러한 단어 선택에 대해 문의하였지만, 그는 이 문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30) H. G. Liddell and R. Scott, *A Greek-English Lexicon* (Oxford: Clarendon Press, 1996), 66.

미봉책 혹은 다른 하나의 가능성을 덮어 두는 무책임에 불과하다.

사전 편찬자와 번역자가 가질 수밖에 없는 또다른 고충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리스 단어 ‘안드로키노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존재하지 않는 점이다. 만일 이러한 그리스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존재한다면, 칠십인역 잠언에서의 의미를 다른 단락에서의 의미에 유추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용동체’로서의 인간을 정의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성경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인간 개념을 드러내기에,³¹⁾ 칠십인역에 두 차례밖에 나타나지 않는 단어를 ‘자용동체’로 이해하여 번역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남자’와 ‘여자’로서의 창조, 혹은 ‘자용동체’로서 인간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비단 특정한 문명이 묘사하는 인간상을 반영할 뿐 아니라, 그를 창조한 신관과 직접 연관되고, 신이 가지고 있는 윤리성은 곧바로 인간 세계의 윤리에 이어지기 때문이다.³²⁾ 그리스 신화와 달리 창세기 1:26-28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³³⁾에 따라 창조되었고,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고 기술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약성서 인간관의 전제 아래 ‘안드로키노스’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 중 둘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심층적인 추론일 뿐, 실제로 칠십인역 번역자가 이를 어떠한 의도에서건 ‘자용동체’의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칠십인역 잠언 18장과 19장에 등장하는 ‘안드로키노스’를 ‘여자 같은 남자’로 번역할 경우, 과거 칠십인역 번역자가 이처럼 헤브라이즘에 대치하고, 민감한 신학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안드로키노스’라는 단어를 굳이 선택한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태초에 인간이 이미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성경의 진술은 그리스의 인간 창조 이야기와 결코 화해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사실이다.³⁴⁾ 그러나, 독자들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둘째 인간 창조 이야기(창

31) 구약성서가 기술하는 인간관을 위해서는 H. W. Wolf, *Anthropologie des Alten Testaments*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73)를 참조할 수 있다. 최근 새로운 논의를 위해서는 A. Wénin, *L'homme biblique: Anthropologie et éthique dans le Premier Testament* (Paris: Ed. du Cerf, 2004²)을 보라.

32) O. Keel and C. Uehlinger, *Gods, Goddesses, and Images of God in Ancient Israel* (Edinburgh: T & T Clark, 1988), 177-281.

33) 이 본문은 히브리어 문법과 구약신학에서뿐만 아니라 종교학 분야에서도 많은 연구를 일으킨 표현들을 포함한다. 소위 유일신 하나님으로 알려진 구약의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형상’(26절)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한 것은 문법적으로는 장엄의 복수로 이해되고 있는가 하면 (Gesenius, § 124, g), 종교학적으로 이는 당시 다신론적 배경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참조, W. R. Garr, *In His Own Image and Likeness: Humanity, Divinity, and Monotheism, Culture and History of the Ancient Near East 15* (Leiden; Boston: Brill, 2003), 186-191.

2:21-24)에 전주어 칠십인역 잠언 본문을 읽으면, 이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준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³⁵⁾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기 위하여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다. 잠언 19:15에서 언급하고 있는 ‘깊은 잠’(תַּרְהֻמָּה)[창 2:21; 15:12; 삼상 26:12; 욥 4:13; 33:15; 잠 19:15; 사 29:10]³⁶⁾은 창세기 2장의 인간 창조 이야기에서 아담의 상대자(אִשָּׁה)³⁷⁾ 하와를 창조할 당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리는 상황을 상기시킴으로 그리스의 인간과 구약성서의 인간 창조 당시 인간의 모습을 비교하도록 한다.³⁸⁾ 비록 히브리어 ‘타르데마’에 해당하는 그리스어가 잠언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 단어의 위치에 해당하는 말로 ‘안드로귀노스’가 등장함으로써 후대의 칠십인역 독자들은 ‘안드로귀노스’가 나타나는 본문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창세기 2장 본문을 떠올리는 연상 작용을 일으킨다.³⁹⁾ 비록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것과 잠

34) 일부 학자들은 창 1:27의 본래적 인간 ‘아담’을 양성(bisexual) 혹은 무성(asexual)의 존재로 이해한다. 참조, F. Schwally, “Die Biblischen Schöpfungsberichte”, *ARW* 9 (1909), 159-175. 그러나 P. Tribble, *God and the Rhetoric of Sexuality* (Philadelphia: Fortress, 1978), 15-23은 ‘sexually undifferentiated’라는 표현을 선호한다. 이스라엘의 미드라쉬 및,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등 구약 주변세계에 나타나는 자동동체로서의 인간 이해를 위해서는 J. C. de Moor, “The duality in God and Man: Gen. 1:26-27 as P’s Interpretation of the Yahwistic Creation Account”, J. C. de Moor, ed., *Intertextuality in Ugarit and Israel: Papers Read at the Tenth Joint Meeting of the Society for Old Testament Study and Het Oudtestamentische Werkgezelschap in Nederland en België, held at Oxford*, OTS XL (Leiden: Brill, 1998), 119-124를 보라.

35) אִשָּׁה עַל תַּרְהֻמָּה עַל הָאָדָם וְהָיָה אֵלֶיהֶם תַּרְהֻמָּה עלֵי הָאָדָם은 문자적으로 ‘그리고 야훼 하나님이 그 인간 위에 깊은 잠을 떨어뜨리셨다’로 옮길 수 있다.

36) 동사형 ‘라담’(רָדַם) 역시 7회 등장한다(삿 4:21; 시 76:7; 잠 10:5; 단 8:18; 10:9; 욥 1:5, 6).

37) 『개역개정』은 창세기 2:18, 20의 히브리어 ‘네게드’(נֶגֶד)를 ‘배필’로 번역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히브리어 단어는 ‘짝,’ ‘상대자’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를 ‘짝’으로 옮긴 『공동』과 partner로 옮긴 영어 NRSV 성경의 번역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38) D.-M. d’Hamonville, *Les Proverbes*, 108-110. 참조, G. S. S. Thomson, “Sleep: An Aspect of Jewish Anthropology”, *VT* 5 (1955), 421-433.

39) ‘타르데마’를 포함하는 일곱 본문 가운데 자구적으로 ‘깊은 잠’에 해당하는 그리스 단어를

언 19:15의 마소라 본문에서 게으름이 잠에 빠지게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칠십인역에 나타난 ‘안드로귀노스’에 위치적으로 대응⁴⁰⁾하는 히브리어 낱말이 ‘깊은 잠’인 것을 우연의 일치로만 보기에는 그 파급력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실은 이 논의에서 핵심 가설로 작용하는데, 이러한 경우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여겨지듯이 과연 칠십인역 번역자가 ‘안드로귀노스’를 단지 ‘여자 같은 남자’의 의미로 사용했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더 나아가 필로(Philo)를 비롯한 고대의 유대 학자들이 창세기 1-3장의 창조 단락을 번역할 때, 그 주요 용어들을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의 영향 아래, 플라톤이 사용한 창조 전문용어를 활용하여 번역한 사례들도 창세기 2장과 잠언 19장의 연관성을 공고하게 만든다.⁴¹⁾ 예언서와 성문서를 그리스어로 옮긴 칠십인역 번역자들에게 그 이전에 번역된 칠십인역 오경의 단어들이 사전 역할을 했다는 것은 칠십인역 학계에서는 공리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칠십인역 잠언 18장과 19장의 번역자가 ‘안드로귀노스’라는 단어를 선택했을 때, 창세기 1-3장의 창조 이야기를 숙지하고 있었을 것임은 거의 분명하다.

후대의 칠십인역 독자들이 ‘안드로귀노스’를 ‘여자 같은 남자’로 이해할 경우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에 나타난 인간 이해의 충돌을 쉽게 막을 수 있지만, 이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남자의 몸에서 여자의 몸을 창조할 때,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했다는 것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구약성서의 인간 창조를 연상시키며, 이는 더 나아가 그리스 문명권 아래 있던 칠십인역 번역자들이 인간 창조의 원형으로서 ‘안드로귀노스’를 유추하도록 하는 사실을 간과하게 한다. 다시 말해, 단순히 칠십인역 잠언의 ‘안드로귀노스’를 ‘여자 같은 남자’로 이해하는 것은 근원적인 문제를 덮어두는 소극적인 해결 방안에 불과하다.⁴²⁾

포함하는 본문은 단 하나도 없다. 히브리어 ‘타르데마’를 대부분 칠십인역 본문은 ‘놀라움,’ 혹은 ‘두려움’으로 번역한다(창세기의 경우, ἔκστασις; 사무엘상의 경우, θάμβος; 욥기의 경우, φόβος; 이사야의 경우, κατάνυξις).

40)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6), 178, 202: “(...) 칠십인역의 어순이 히브리어 본문의 어순과 동일한 것은 칠십인역의 번역 성격이 바로 행간 번역과 같음을 말해 주는 것(...)”, “(...) 어순까지 무리하게 일치시키려는 칠십인역의 오경 번역(...)”

41) 히브리어 첼렘(חַלֵּם)은 에이콘(εἰκών)으로(창 1:26 등), 바라(בַּרָא)와 야차르(יָצַר)는 각각 포이에오(ποιέω)와 플라트소(πλάσσω)로 번역되는데(창 1:1; 2:7 등), 이는 플라톤의 전문용어이다. 칠십인역 잠언과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의 관련을 위해서는 참조, D. Runia, *Philo of Alexandria and the Timaeus of Plato*, *Philosophia Antiqua* 44 (Leiden: Brill, 1986); M. Rösel, *Übersetzung als Vollendung der Auslegung*, *BZAW* 223 (Berlin: de Gruyter, 1994), 29-30, 73-87; W. Loader, *Philo, Josephus, and the Testaments on Sexuality*, 204-216.

42) T. Boman, 『히브리적 사유와 그리스적 사유의 비교』, 허혁 옮김(왜관: 분도출판사, 1975), 115는 고대 그리스와 구약성서의 인간 창조 이야기의 관계에 대해 “이 신화(그리스 신화)의 형식은 창세기 2장의 것과 전혀 다르다. 그러나 그 의미는 꼭 같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그

3.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에 참여한 독자들은 칠십인역 잠언의 안드로귀노스가 여자 같은 남자를 뜻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웅동체를 뜻하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할 지점에 이르렀다. ‘안드로귀노스’, 그는 ‘자웅동체’인가, 아니면 비겁하고 졸렬한 ‘여자 같은 남자’를 상징하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마소라 본문을 손에 지니지 않은 채 칠십인역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안드로귀노스’를 ‘여자 같은 남자’로 이해할 수 있다. 비록 이는 자웅동체로서의 ‘안드로귀노스’로부터 이차적으로 파생된 의미에 해당하지만, 잠언 19장에는 남자와 여자, 남자답지 못한 게으른 사람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칠십인역 성경이 번역 대본으로 삼은 마소라 본문과 비교하여 읽을 때, 완전히 다른 독법을 산출한다. 오경의 창조 단락과 관련된 용례를 숙지하고, 고전 그리스 문화에 조예가 깊은 독자들은 ‘안드로귀노스’라는 단어에서 충분히 자웅동체의 의미를 떠올릴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칠십인역 잠언 번역자는 자신의 번역문 안에서, 히브리 대본과 그리스 고전 작품을 넘나드는 문학의 창조력과 상상력의 기계(奇計)를 유감없이 발휘한다.

서로 다른 문학의 맥락, 즉 독자적인 문헌으로서의 칠십인역 안에서와, 번역본과 대본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가운데, ‘안드로귀노스’가 ‘여자 같은 남자’를 의미할 뿐 아니라 ‘자웅동체’를 중의적으로 떠올릴 수 있다는 추정은 단지 이 연구의 결론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더 나아가 칠십인역 잠언 번역자의 단면을 엿보게 한다. 그는 단순히 문자에 얽매어 기계적인 번역자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그는 팔레스틴 혹은 알렉산드리아의 이방 땅에서⁴³⁾ 매우 높은 수준의 그리스어를 구사한 자였으며⁴⁴⁾, 그리스 고전에 능통한 학자였다. 그러나 그는 당시 자신에게 파괴적인 힘으로 다가온 그리스 문명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이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 이는 그가 그리스 고전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만, 결코 어느 곳에서도 아무런 비판 의식 없

는 어떠한 의미에서 그 의미가 같은지 설명하지 않는다. 보만은 헬레니즘 사상과 히브리 사상의 유사성을 강조하여, 그리스 사상과 기독교는 본질상 매우 유사하고 공통 가치를 지니며, 서로 대립하지 않고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그리스 사유와 히브리 사유를 서로 대립하고 적대시하는 편협한 이해를 교정하지만, 그의 이러한 추론은 세밀한 논증을 결여하고 있다.

43) 칠십인역 잠언의 저작 장소는 지금까지 논쟁 가운데 있고, 이는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

44) G. Gerleman, *Studies in the Septuagint. III. Proverbs*, Lunds Universitets Årsskrift. N.F. Avd. 1. Bd 52. Nr 3 (Lund: Gleerup, 1956), 10; J. Cook, *The Septuagint of Proverbs*, 316.

이 긍정적으로 인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⁴⁵⁾ 이러한 사실은 ‘안드로귀노스’라는 민감한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낱게 될 칠십인역 저자의 문화 및 종교 전략을 드러내는데,⁴⁶⁾ 그는 자신의 민족이 긴 포로기를 겪으며 이방의 강력한 문화를 흡수하여 정체성을 잃어갈 위험에 처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자신의 성경을 단순히 간직하지 않고, 전수 받은 신앙 안에서 주체적으로 재해석하고 재생산한다.

<주요어>(Keywords)

안드로귀노스, 여자 같은 남자, 자웅동체, 칠십인역, 마소라 본문.

androgynous, effeminate person, hermaphrodite, Septuagint, masoretic text.

(투고 일자: 2012년 7월 16일, 심사 일자: 2012년 8월 17일, 게재 확정 일자: 2012년 9월 28일)

45) J. Cook, *The Septuagint of Proverbs*, 320.

46) 천사무엘, “칠십인역의 해석학적 특징”, 청훈 강사문 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발간위원회 편, 『깊은 말씀, 맑은 가르침』(서울: 땅에 쓰신 글씨, 2007), 393-397에서 소개한 칠십인역의 번역에 대한 ‘사회-역사적 이유’와 함께 ‘문화적 배경’ 역시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다.

<참고문헌>(References)

- 구덕관, 『지혜와 율법』,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6.
- 김근주 외, “칠십인역 우리말 번역을 위한 연구- 창세기 1:1-2:3의 예로-”, 『성경원문연구』 21 (2007), 53-68.
- 김유기, “잠언 31장 10절 <에세트 하일>의 의미”, 『장신논단』 40 (2011), 119-141.
- 김정우, 『잠언』,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19,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김정훈, 『칠십인역입문』, 의정부: 바오로딸, 2009.
-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6.
- 민영진, “현숙(賢淑)한 아내나, 유능(有能)한 아내나: 잠언 31:10-31”, 『성경연구』 70 (2001), 42-59.
- 박준서,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운동”, 『구약논단』 8 (2000), 143-147.
- 천사무엘, 『구약 외경의 이해』,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2006.
- 천사무엘, “칠십인역의 해석학적 특징”, 청훈 강사문 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발간위원회 편, 『깊은 말씀, 맑은 가르침』, 서울: 땅에 쓰신 글씨, 2007, 381-397.
- 천사무엘, “잠언 연구의 주요 해석학적 과제들”, 『구약논단』 30 (2008), 147-166.
- 천사무엘, 『지혜전승과 지혜문학』, 서울: 동연, 2009.
- Boman, T., 『히브리적 사유와 그리스적 사유의 비교』, 허혁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1975.
- Brenton, L. C. L., *The Septuagint with Apocrypha: Greek and English*,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86.
- Cook, J., *The Septuagint of Proverbs - Jewish and/or Hellenistic Proverbs? Concerning the Hellenistic Colouring of LXX Proverbs*, VTS 69, Leiden: Brill, 1997.
- Crenshaw, J. L., 『구약지혜문학의 이해』, 강성열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 Eliade, M., *Méphisophélès et l'androgyné*, Paris: Gallimard, 1995.
- Erman, A., “Eine ägyptische Quelle der ‘Spüche Salomos’”, *SPAW* 15 (1924), 86-93.
- Fohrer, G., “Σοφία”, *TWNT* 7, 476-496.
- Garr, W. R., *In His Own Image and Likeness: Humanity, Divinity, and Monotheism, Culture and History of the Ancient Near East* 15, Leiden; Boston: Brill, 2003.
- Gerleman, G., *Studies in the Septuagint. III. Proverbs*, Lunds Universitets Årsskrift. N.F. Avd. 1. Bd 52. Nr 3, Lund: Gleerup, 1956.
- Gordon, C. H., *The Common Background of Greek and Hebrew Civilization*, New York: W. W. Norton, 1965.

- Gorsen, L., “La cohérence de la conception de Dieu dans l’Ecclesiaste”, *ETL* 46 (1970), 282-324.
- Hamilton E. and Craigs H., eds., *The Collected Dialogues of Plato*,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2. 1
- d’Hamonville, D.-M., *La Bible d’Alexandrie: Les Proverbes*, Paris: Cerf, 2000.
- Harrison, R. K., 『구약서론(하)』, 류호준, 박철현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 Hengel, M., *Judaism and Hellenism*, II, tr. J. Bowden, London: SCM, 1974.
- Horstkotte, S., *Androgyne Autorschaft: Poesie und Geschlecht im Prosawerk Clemens Brentanos*, Tübingen: M. Niemeyer, 2004.
- Jobes K. H. and Silva, M., *Invitation to the Septuagint*, Grand Rapids: Baker, 2000.
- Jung, C. G., 『원형과 무의식』, 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 서울: 숲, 2003.
- Karrer, M. and Kraus, W., eds., *Septuaginta Deutsch: Das Griechische Alte Testament in Deutscher Übersetzung*,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0.
- Kautzsche, E., ed., *Gesenius’ Hebrew Grammar*, Oxford: Clarendon, 1988.
- Kayatz, C., *Studien zu Proverbien 1-9*,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66.
- Keel O., and Uehlinger, C., *Gods, Goddesses, and Images of God in Ancient Israel*, Edinburgh: T & T Clark, 1988.
- Kille, D. A., *Psychological Biblical Interpretation*, Minneapolis: Fortress, 2001.
- Liddell H. G. and Scott, R., *A Greek-English Lexicon*, Oxford: Clarendon Press, 1996.
- Loader, W., *The Septuagint, Sexuality, and the New Testament: Case Studies on the Impact of the LXX in Philo and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Cambridge: Eerdmans, 2004.
- Loader, W., *Philo, Josephus, and the Testaments on Sexuality: Attitudes towards Sexuality in the Writings of Philo and Josephus and in the Testaments of the Twelve Patriarchs*, Grand Rapids; Cambridge: Eerdmans, 2011.
- Lust, J., “Exegesis and Theology in the Septuagint of Ezekiel. The Longer ‘Pluses’ and Ezek 43:1-9”, C. E. Cox, ed., *LXX VI Congress of IOSOT, Jerusalem 1986*, Atlanta: Scholars Press, 1987, 201-232.
- Lust, J., Eynikel, E., and Hauspie, K., with the collaboration of G. Chamberlain,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Septuagint*. Pt. 1,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2.
- Mitterer, N., *Liebe ohne Gegenspieler: Androgyne Motive und Moderne*

- Geschlechteridentitäten in Robert Musils Romanfragment "Der Mann ohne Eigenschaften"*, Graz: Grazer Universitätsverlag, 2007.
- Monneyron, F., *L'androgynie romantique: du mythe au mythe littéraire*, Grenoble: ELLUG, 1994.
- Monneyron, F., *L'androgynie décadent: mythe, figure, fantasmes*, Grenoble: Ellug, 1996.
- de Moor, J. C., "The duality in God and Man: Gen. 1:26-27 as P's Interpretation of the Yahwistic Creation Account", J. C. de Moor, ed., *Intertextuality in Ugarit and Israel: Papers Read at the Tenth Joint Meeting of the Society for Old Testament Study and Het Oudtestamentische Werkgezelschap in Nederland en België, Held at Oxford*, OTS XL, Leiden: Brill, 1998.
- Muraoka, T.,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Septuagint*, Louvain; Paris; Walpole: Peeters, 2009.
- Ouardi H. ed., *L'androgynie en littérature*, Dijon: Éd. universitaires de Dijon, 2009.
- Pearson, B. A., *Gnosticism, Judaism, and Egyptian Christianit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0.
- von Rad, G., *Wisdom in Israel*, London: SCM, 1972.
- Rösel, M., *Übersetzung als Vollendung der Auslegung*, BZAW 223, Berlin: de Gruyter, 1994.
- Runia, D., *Philo of Alexandria and the Timaeus of Plato*, Philosophia Antiqua 44, Leiden: Brill, 1986.
- Schwally, F., "Die Biblischen Schöpfungsberichte", *ARW* 9 (1909), 159-175.
- Scott, R. B. Y., "성서의 슬기", 문희석 역, 『오늘의 지혜문학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9-42.
- Thomson, G. S. S., "Sleep: An Aspect of Jewish Anthropology", *VT* 5 (1955), 421-433.
- Tov, E.,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 Tov, E., "Recensional Differences between the MT and LXX of the Book of Proverbs", *The Greek and Hebrew Bible: Collected Essays by E. Tov*, SVT 72, Leiden: Brill, 1997, 419-431.
- Toy, C. H., *The Book of Proverbs*, ICC, Edinburgh: T & T Clark, 1977.
- Trible, P., *God and the Rhetoric of Sexuality*, Philadelphia: Fortress, 1978.
- Walker, W., 『세계기독교회사』, 강근환 외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7.
- Wénin, A., *L'homme biblique: Anthropologie et éthique dans le Premier Testament*, Paris: Ed. du Cerf, 2004².
- Whybray, R. N., *Wisdom in Proverbs: The Concept of Wisdom in Proverbs 1-9*,

Chatham: SCM, 1965.

Will, E. et Orrieux, Cl., *Ioudaïmos - Hellénismos. Essai sur le judaïsme judéen à l'époque hellénistique*, Nancy: Presses universitaires de Nancy, 1986.

Wolf, H. W., *Anthropologie des Alten Testaments*,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73.

Zimmerli, W., "The Place and Limit of Wisdom in the Framework of the Old Testament Theology", *SJT* 17 (1964), 146-158.

Züger, A., *Männerbilder - Frauenbilder: Androgyne Utopie in der deutschen Gegenwartsliteratur*, Bern; New York: P. Lang, 1992.

<Abstract>

**Androgyne (Pro LXX 18:8; 19:15):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in Hebraism and Hellenism**

Prof. Sun-Jong Kim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The Greek word ‘androgyne’ that appears in Plato’s Symposium defines the primordial human being as a hermaphrodite. After Zeus’ wrath, this human being is divided as a male and a female. This Greek mythical definition of the human being is not harmonious with the Hebraic one given in the creation narrative of Genesis 1-2. Hence, the biblical reader can be astonished to get to know that this scandalous word is used in the Greek version of the Old Testament, the Septuagint.

This textual bizarreness drives the Septuagint specialists to translate ‘androgyne’ as an effeminate man rather than as a hermaphrodite in Proverbs LXX 18:8 and 19:15. It is possible that the word ‘androgyne’ in 19:15 forms wordplay with a *gunè andri* in the previous verse. However, this is a makeshift measure devised in order to evade an interpretative difficulty. In this case, one cannot reflect a great semantic meaning of an androgyne. In light of the Ancient Near Eastern civilization, a deep sleep in Genesis 2:21 and the image of God in Genesis 1:26 can be reconsidered in a mythical background of human creation.

This article considers not only a textual problem related to ‘androgyne’ but the cultural strategy of the Septuagint translators who had to preserve and express their faith as diasporan Jews under the influence of Hellenism.